미래사회
Journal of the Future of Society
2021. Vol. 12, No. 7, 117~13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차별 가/피해 경험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최 홍 일* **정 윤 미**** **유 설 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중 2기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표본을 대상으로, 이들의 차별 가해 경험 및 차별 피해 경험의 관계에 대해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 모두 자기회귀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경험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차별 피해와 차별 가해 경험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차별 가해와 피해 경험이 서로 교차하여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차별 가해와 피해 간의 관계에서 모방 및 학습을 통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아동의 차별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차별 가해 경험, 차별 피해 경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자기회귀교차지연

* 주저자: 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7층
Tel: 044-415-2187/E-mail: chi1121@nypi.re.kr
** 교신저자: 정윤미/숙명여자대학교 박사 수료/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7층
Tel: 044-415-2188/E-mail: whandym@nypi.re.kr
*** 공동연구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7층
E-mail: shee05@nypi.re.kr

Ⅰ. 문제제기

폭력, 갈취, 약물남용 등 인간, 특히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일탈과 비행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개발과 개발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일반긴장이론, 차별접촉이론 등 일탈행위 종류만큼 많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제시되어왔다. 일탈에는 개인적 요인을 포함하여, 가족, 친구, 지역사회, 법과 제도와 같이 개인을 둘러싼 생태체계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 중 사회학습이론(Akers & Lee, 1996),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1947; 박정선, 황성현, 2013. 재인용), 일반긴장이론(Agnew, 1992) 등은 학습과 모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탈에 집중한다. 즉,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탈을 경험한 대상은 이를 보상과 결과를 통해 정의 내리고 학습한 뒤 유사한 형태의 일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Akers & Lee, 1996). 이들 이론은 일탈과 비행을 경험했음에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비행에 있어 개인적 요인의 비중을 저평가하는 등의 비판이 있지만,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다른 이론들에 비해 비행을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비행과 일탈에 대한 중요한 이론으로 거론되고 있다(박정선 외, 2013).

이러한 학습과 모방의 과정을 통해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폭력, 학대, 따돌림 등과 같이 행위의 대상이 존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조가 발생하는 비행을 설명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학습과 모방의 관점에서 둘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때, 가해-가해, 피해-피해로 이어지는 동일 경험 간의 인과관계(자기회귀)도 관찰되지만, 가해-피해, 피해-가해로의 경로(교차지연)도 경험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중첩 등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김선아, 2005; 이유나, 2015; 박현수, 2018; 김가은, 2019). 청소년 차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김승경, 최정원과 강지명(2016)은 단 한 번이라도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은 또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차별을 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박지수와 한윤선(2018)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에서 폭력의 지속성과 역동성에 대한 개념을 통해 지속적인 과정에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의 전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의 전환을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방과 학습을 통한 가·피해자 간의 중첩 관계가 차별의 가해와 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도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종단 사례 분석을 통해 차별 경험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 인종, 외모 등으로 인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성별, 종교,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차별은 해당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심리·정서적 상처를 안길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데,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박영준, 이정숙, 2016), 인지 및 심리사회발달과 학교적응(오승환, 김광혁, 2017)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증가를 가져와 차별 가해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오세현, 강현아, 2018). 한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아동은 낙인과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발달 저하를 성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고 보고된다(오승환 외, 2017). 이혜경과 조은정(2021)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경우 빈곤에 기인하는 기본적인 생활욕구의 결핍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한다(이혜경·조은정,

2021). 이러한 결과들은 대상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 환경적 요인이 취약할수록 차별을 많이 경험하며, 차별로부터 받는 부정적 영향력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취약계층 아동이 경험한 차별 또는 가해경험이 학습과 모방을 통해 다음 시점의 가해 또는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유발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차별 가해와 피해 간의 중첩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해와 피해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횡단적 자료를 통해 가해와 피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치를 파악하거나 동일한 시점 안에서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정규형, 2016; 홍기혜, 2019) 정도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존재하는 가해와 피해 간의 중첩을 확인하고 이전 시점의 가해와 피해 경험이 다음 시점의 가해와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서(이지언, 정익중, 2016) 차별 경험으로부터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 가·피해 경험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검증을 통해 이전 시점과 다음 시점의 가·피해 경험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전 시점의 가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이전 시점의 피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이전 시점의 가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이전 시점의 피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과 차별

차별(差別, discrimination)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에 따라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에 의해 열등감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두산백과, 2019). 이러한 차별은 의도적인 기만이나 무지, 전통적인 편견과 감정적 반응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타인이 자신과 다를 수 있음을 구별(區別, differentiation)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승인의 기준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차별이 문제시될 수 있다(박영균, 강순원, 김영지, 2004).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법률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이나 국가, 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

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임을 명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아동에 대한 차별은 아동의 발달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인의 관점과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SNS나 방송 등에서 어떤 분야에 갓 입문하여 능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린이'라는 용어를 활용함으로써 아동을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차별의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씌워지고 있다.

아동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으며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학업성적이나 학교, 성별, 외모, 지역 등 다양한 잣대와 기준에 의해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1명 이상이 학업성적(17.9%)과 나이(13.6%), 성별(12.3%), 외모(10.7%)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김승경 외, 2016). 이러한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지거나(최현주, 박선영, 2015), 외로움, 불안과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며(차유정, 황의갑, 2017), 자살 생각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청소년기 또래 간에 경험한 차별은 괴롭힘과도 연결되며 우울이나 고의적인 자해, 자살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Garnett, Masyn, Austin, Miller, Williams, & Viswanath, 2014).

특히,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인 양극화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나 주거에서 발생한 빈곤과 결핍의 문제가 아동의 교육이나 문화적 기회,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도 불평등이나 배제, 무시, 차별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주거 형태에 따라 '엘사(영구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 '기생수(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을 혐오하는 표현이 장난처럼 사용되고 있어(서울신문, 2020. 1. 5.) 우리 사회에서 빈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외 연구에서도 빈곤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본인이 차별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Fuller-Rowell, Evans, & Ong, 2012).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인종에 따라 소외 계층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은 다른 계층에 비해 여러 형태의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 단일한 차별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Grollman, 2012). 즉,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 경험한 차별은 결국 그들의 삶의 질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및 교육, 놀이와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시설별 정원의 80% 이상은 가구 특성 및 소득 기준에 따라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집단에 속해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차별이 취약계층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2. 차별 피해와 차별 가해 간의 관계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은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차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 경험은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사회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송인한 외, 2011). 이에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한 차별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이 경험한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이나 차별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본 연구(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년에 1회 이상 연령에 따른 차별(31.4%), 성별(28.8%), 학업성적(28.5%), 외모 및 신체조건(24.1%) 등의 순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하였고, 외모·신체조건(13.3%), 학업성적(11.9%), 성별(11.7%), 연령(11.3%) 등의 순으로 자신이 타인을 차별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은 주로 연령과 성별, 학업성적, 외모 등과 관련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학업성적과 외모, 장애, 학력/학벌, 나이, 성별, 가정형편 등의 순으로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김승경 외, 2016).

이러한 차별의 피해, 가해 집단을 살펴본 결과(김승경 외, 2016), 아동·청소년은 학교 선생님이나 가족, 친척,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차별을 당하였고, 자신은 친구나 선·후배 등의 또래집단에게 차별을 가하였다고 밝혀져,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에게 차별 피해를 당하고, 자신과 동등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에게는 차별 가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차별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승경 외, 2016; 정규형, 2016; 차유정, 황의갑, 2017; 홍기혜, 2019), 차별 가해 경험은 차별 피해 경험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으며, 결국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방증하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차별 피해 경험이 차별 가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오세현, 강현아, 2018) 차별 경험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적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다시 타인에게 가해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차별을 경험한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나와는 다른 사람을 구분 짓거나 편견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차별을 행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69)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동은 여러 가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모델이 영향력이 있거나 모델의 행동이 긍정적인 강화를 받는 경우 그 행동을 더 잘 모방하는 대리강화(vicarious reinforcement)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차별을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행위를 학습하게 되고, 나와는 다르거나 나보다 약한 집단에게 자신이 당했던 무시나 배제되었던 경험 등을 표출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차별을 당했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교사, 또래 등 아동에게 영향력이 있는 타인이 차별행위를 함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그들이 행한 차별행위를 모방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 등 여러 가지 행동을 배우게 되고, 이는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박성연, 2006)에서 아동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도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현재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과 삶의 질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별 가해 경험이 피해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깨진 유

리창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데,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 또는 일탈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이후 통제 약화를 통해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이기헌, 2016). 다시 말해, 차별이라는 행위가 방치되고 증가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게 되면 집단 내에서 차별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안에서 차별 가해 행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차별 피해 사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이 사회적 환경에서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경우, 차별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역시 가능할 수 있다는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차별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은 서로 부정적인 순환 관계에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별 피해와 가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조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기 패널을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기 패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600명의 목표표본을 설정하여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센터는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유사한 조건일 경우 조사 편의를 위해 1기 패널 조사가 이루어지는 센터를 우선 고려하였다(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팀, 2019.0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기 패널은 2014년 606명의 패널이 구축되어 2019년까지 6차(중학교 3학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기 패널 1~3차(초등학교 4학년~6학년) 데이터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은 표본 특성 상 표본 탈락률이 크고, 매년 일정 부분 대체표본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조사가 지속되는 원표본 수(1차: 606명, 2차: 485명, 3차: 381명, 4차: 156명, 5차: 91명, 6차: 52명) 등을 고려하여 1~3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 한 381명 중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기 패널 1~3차년도 동안 매년 조사되고,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에서 모두 조사 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6개 문항 중 일반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을 경험한 학업성적, 성별, 외모(김승경 외, 2016, 최창욱 외, 2018) 3개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3개의 차별 가해와 피해 경험('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차별을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차별을 당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차별을 당했다')을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1=한번도 없음, 2=일년에 1~2회 정도, 3=한달에 1~2회 정도, 4=일주일에 1~2회 정도, 5=일주일에 3회 이상)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가해나 피해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성적, 외모의 이유로 차별을 한 적이 있거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세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교차지연 분석 과정에서 자기회귀가 통제되어 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는 효과가 있어, 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별도의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홍석기, 하문선, 2017).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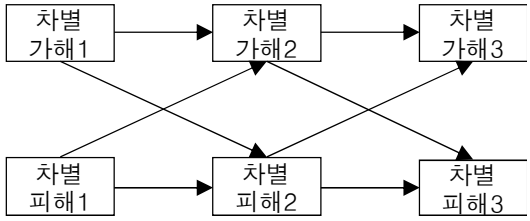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Bandura (1969)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종단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상관분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CLM)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수들의 인과관계 방향 결정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오차를 통제 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변수들과 다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과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로 나눌 수 있으며, 자기회귀모형은 한 시점(t)의 값이 이전 시점의 값(t-1)에 의해 설명되는 것(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이며, 교차지연효과는 두 변인간의 시간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홍성두,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들은 측정 동일성 → 경로 동일성 → 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순서로 검증한다(김주환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에 측정변수를 사용하여 측정 동일성을 제외한 경로 동일성과 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순서로 검증하였다(박지수 외, 2018). 이에 6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으로 선택 된 모형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검정, TLI, CFI, RMSEA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으며, χ^2 검정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성태제, 2014). 다른 지수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SPSS 25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AMOS 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차별 가해 및 피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경험의 1, 2, 3차년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의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차별 가해 경험 1차년도는 1.23, 2차년도 1,27, 3차년도 1.23으로 나타났다. 차별 피해 경험은 1차년도 1.18, 2차년도 1.20, 3차년도 1.1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차별 가해 경험이 차별 피해 경험보다 많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모두 2차년도에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3차년도에 다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정규분포성 기준(왜도: 절대값 3 이하, 첨도: 절대값 7 또는 10 이하(Kline, 2005, 지연옥, 2017 재인용))을 초과하여 추후 모수 추정시 비정규성 분포일 경우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가해 3차년도와 차별 피해 1차년도를 제외 한 모든 변수들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 피해 2차년도와 차별 가해 2차년도, 차별 피해 3차년도 차별 가해 3

차년도의 상관은 각각 0.544, 0.611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1>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N=380)

	1	2	3	4	5	6
1. 차별 가해t1	1					
2. 차별 가해t2	.283**	1				
3. 차별 가해t3	.174**	.210**	1			
4. 차별 피해t1	.399**	.255**	0.078	1		
5. 차별 피해t2	.200**	.544**	.156**	.248**	1	
6. 차별 피해t3	.183**	.255**	.611**	.147**	.249**	1
평균	1.23	1.27	1.23	1.18	1.20	1.17
표준편차	0.54	0.49	0.51	0.45	0.45	0.38
왜도	3.62	2.29	3.20	3.84	3.46	2.84
첨도	16.56	5.73	12.87	19.58	16.93	9.48

*p<.05, **p<.01, ***p<.001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본 연구는 아동의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의 관계와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데이터의 왜도와 첨도(표 1 참조)를 살펴보면 데이터가 비정규성 분포를 가지고 있어 모수 추정시 Bollen-Stine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오영창, 박은식, 윤경희, 2017).

본 연구에서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순으로 검증하였다(김주환 외, 2009). 경로 동일성은 t-1 시점의 변수가 t 시점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회귀계수와 t 시점의 변수가 t+1 시점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회귀계수가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이다(김주환 외, 2009). 오차 공분산 동일성은 오차 간의 공분산을 고정하여 각 변수가 가지는 관련성을 진짜 관련성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우연하게 발생한 관련성인지 검증하는 것이다(김주환 외, 2009).

기본 모형과 경로 동일성 모형, 오차 공분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한다. 본 분석에서의 각각의 모형과 이에 대한 설명은 표 2와 같다.

<표 2> 경로 동일성 및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한 6개의 경쟁모형

모형		내용
기본 모형	모형1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경로 동일성	모형2	모형 1에 추가하여 차별 피해 관계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모형2에 추가하여 차별 가해 관계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모형3에 추가하여 차별 가해 관계에 대한 차별 피해 관계의 교차회귀계수(C)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모형4에 추가하여 차별 피해 관계에 대한 차별 가해 관계의 교차회귀계수(D)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오차 공분산 동일성	모형6	모형5에 추가하여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관계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E)에 제약을 가한 모형

본 연구에 적합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1에서 모형 6까지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 적합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CFI	ΔRMSEA
모형1	8.109	4	0.966	0.991	0.052			
모형2	9.018	5	0.973	0.991	0.046	0.909	0	-0.006
모형3	9.214	6	0.982	0.993	0.038	0.196	0.002	-0.008
모형4	9.285	7	0.989	0.995	0.029	0.071	0.002	-0.009
모형5	11.228	8	0.987	0.993	0.033	1.943	-0.002	0.004
모형6	11.271	9	0.992	0.995	0.026	0.043	0.002	-0.007

본 연구의 모형적합도를 위해 기본모형의 χ^2과 TLI, CFI, RMSEA를 살펴보았으며, 각 모형의 χ^2 값의 유의확률은 0.05 이상으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한다. 또한 TLI, CFI는 0.9 이상이고, RMSEA는 모형1에서 0.052로 나타나 모든 모형들이 적합하였다. 기본 모형1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경로동일성(모형2~모형5), 오차공분산 동일성(모형6)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 판단기준은 모형 변화에 따른 χ^2, CFI, RMSEA의 변화의 차이를 통해 판단하였다. $\Delta\chi^2$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ΔCFI와 Δ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김담이, 강현아, 2018). ΔCFI는 0.01만큼 감소하고 ΔRMSEA는 0.015보다 증가할 때 모형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F.Chen, 2007, 박지수, 한윤선, 2018 재인용).

모형 적합도 및 모형 적합도의 변화 검토 결과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 차별 피해가 이후 시점의 차별 가해, 차별 피해 간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한 후 이전 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경로동일성(모형2~모형5)에서 $\Delta\chi^2$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ΔCFI는 0.002 수준에서 변화하고, ΔRMSEA는 0.01을 초과하여 변화하지 않고, 0.01보다 낮은 수 수준에서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본 모형에서 각 경로 간 경로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공변량을 제약한 모형6을 살펴 본 결과 ΔCFI는 0.002 증가하였고, ΔRMSEA는 0.007 감소하여 이전모형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형6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간 관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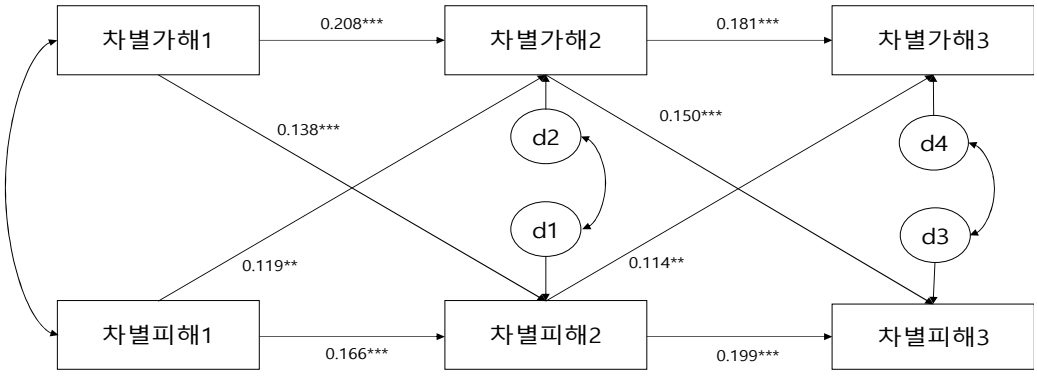
첫째,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이 다음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차별 가해 경험이 2차년도 차별 가해 경험에 영향(β=0.208, P<0.001)을 미치며, 2차년도 차별 가해 경험은 3차년도 차별 가해 경험(β=0.181, P<0.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은 이후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이전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이 다음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년도 차별 피해 경험이 2차년도 차별 피해 경험에 영향(β=0.166, P<0.001)을 미치며, 2차년도 차별 피해 경험이 3차년도 차별 피해 경험(β=0.199, P<0.001)에 영향을 미친다. 이전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은 이후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을 예측한다.

<표 4>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의 자기회귀교차지연의 최종모형 경로계수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차별 가해t2	←	차별 가해t1	0.189	0.038***	0.208
차별 피해t2	←	차별 피해t1	0.167	0.036***	0.166
차별 피해t2	←	차별 가해t1	0.116	0.032***	0.138
차별 가해t2	←	차별 피해t1	0.128	0.044**	0.119
차별 피해t3	←	차별 피해t2	0.167	0.036***	0.199
차별 가해t3	←	차별 가해t2	0.189	0.038***	0.181
차별 피해t3	←	차별 가해t2	0.116	0.032***	0.150
차별 가해t3	←	차별 피해t2	0.128	0.044**	0.114

*p<.05, **p<.01, ***p<.001



[그림 2] 차별 가해 및 피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결과

셋째, 차별 가해와 차별 피해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교차지연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이 다음 시점의 차별 피해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 역시 다음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1차년도의 차별 가해 경험이 2차년도의 차별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β=0.138, p<0.001)을 미쳤으며, 2차년도의 차별 가해 경험이 3차년도의 차별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β=0.150, p<0.001)을 미쳤다. 또한 1차년도의 차별 피해 경험이 2차년도의 차별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β=0.119, p=0.003)을 미쳤으며, 2차년도의 차별 피해 경험이 3차년도의 차별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β=0.114, p=0.003)을 미쳤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차별 가해 경험과 차별 피해 경험이 종단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기 패널의 1~3차년도(초4~초6)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별 가해 경험과 차별 피해 경험의 상호 인과관계를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을 특정한 사유로 차별 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은 다음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이후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차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은 이후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외모, 성적 등의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이후 타인으로부터의 차별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전 시점의 차별 피해 경험은 이후 시점의 차별 가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외모, 성적 등의 이유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아동은 이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차별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들을 통해 차별 피해 경험은 지속적인 차별 피해 경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차별 가해의 경험은 지속적인 차별 가해 경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별 피해 경험은 차별 가해 경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고, 차별 가해 경험은 이후 차별 피해 경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서 차별의 가해 또는 피해 경험에 대한 모방과 학습이 이후 차별의 가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차별 경험과 관련하여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의 경험은 가해와 피해 무엇이 되었건 이후의 가해와 피해 경험을 유발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게 만든다. 차별 피해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학습과 모방, 보상을 통해 가해의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차별 가해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차별 가·피의 증가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의 전체 사례를 증가시켜 결국 차별에 대한 피해 사례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형성 초반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의 적절한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별 가, 피해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기부터 인권교육 또는 차별예방교육 등을 통해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언어, 행동 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한 시점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별, 성적, 외모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차별이라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향후 똑같은 피해 상황이 와도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이는 다른 타인에게 행하여도 문제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부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차별 상황을 인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차별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경험 또한 모방과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차별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 차별 상황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기혜(2019)의 연구에 따르면,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차별 목격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도 차별 가해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별 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잠재적인 차별 가·피해의 직접 경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차별 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개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차별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비취약계층 아동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고 강하다는 근거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결과를 일반아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물론, 성별과 연령에 따른 비교연구 등을 통해 가해와 피해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현재 2기 패널은 중학교 2학년까지 조사되었으나 원표본 유지율이 너무 낮아 중학생들을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면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지 못해 이들의 학교급 변화에 따른 차별 경험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모방과 학습을 통한 교차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가해와 피해, 피해와 가해 경험 간의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즉, 피해와 가해 경험 간의 경로에서 실제로 모방과 학습이 작용하여 그러한 인과관계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해와 피해 간의 교차적 관계에 작용한 기제 또는 요인 파악을 위해 다양한 변인을 투입한 매개, 조절 등의 효과가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대상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차별의 '경험'에 대한 응답은 주관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차별을 당한 경험의 경우 상황과 인식이 불일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 형식으로 조사된 사례를 통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대표성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2019.12.0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83&efYd=20160203.

김가은 (2019).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첩성에 대한 경로분석: 거리코드 가치(code of the srteet)의 적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담이, 강현아 (2018). 가정외 보호 아동의 양육자 관계와 교우관계의 상호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 아동복지연구, 16(2), 109-135.

김선아 (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중첩 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5-36.

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2019.12.0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에서.

두산백과 (2019.12.01.). 두피디아 웹사이트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 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

00755271.

박성연 (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박영균, 강순원, 김영지 (2004).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영준, 이정숙 (2016).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차별경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 31-52.

박정선, 황성현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박지수, 한윤선 (2018).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종단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1-27.

박현수 (2018). 청소년 비행 피해집단 간의 이질성: 순수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중첩집단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1), 75-98.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울신문 (2020. 1. 5.). “넌, 엘사·기생수”… 어른들의 차별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 서울신문 웹사이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6010018에서 2021년 10월 1일.

성태제 (2014). 알기쉬운 통계분석 제2판. 학지사.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99-223.

오세현, 강현아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차별 피해 경험이 차별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4), 611-637.

오승환, 김광혁 (2017). 아동이 경험한 차별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49-67.

오영창, 박은식, 윤경희 (2017).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안녕감에 대한 분석. 조사연구, 18(4), 87-103.

이기헌 (2016).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16(1). 111-144.

이유나 (2015). 학교폭력 피해-가해 중첩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언, 정익중 (2016).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4), 173-197.

이혜경, 조은정 (202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280-289.

정규형 (2016).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5, 31-5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팀(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조사개요.

지연옥 (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사회적지지, 우울 및 자살사고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유정, 황의갑 (2017). 차별과 학대경험이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135-154.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현주, 박선영 (2015).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 청소년복지연구, 17(2), 81-105.

홍기혜 (2019). 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7(1), 33-65.

홍석기, 하문선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8(3), 269-293.

홍성두 (2016).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학령 전 아동의 음운인식과 단어재인의 종단적 관계 분석. 한국초등교육, 27(1), 401-421.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교육심리학연구, 21(1), 129-143.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Akers, R. L., & Lee, G. (1996). A longitudinal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drug issues, 26(2),* 317-343.

Bandura, A. (1969).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Holt, Rinehart, & Winston.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Fuller-Rowell, T. E., Evans, G. W., & Ong, A. D. (2012). Poverty and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Psychological Science, 23(7),* 734-739.

Garnett, B. R., Masyn, K. E., Austin, S. B., Miller, M., Williams, D. R., & Viswanath, K. (2014). The intersectionality of discrimination attributes and bullying among youth: An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8),* 1225-1239.

Grollman, E. A. (2012). Multiple form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3(2),* 199-214.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New Delhi: Vistaar(Sage) publications.

투고일자 : 2021. 11. 28.
심사일자 : 2021. 12. 14.
게재확정일자 : 2021. 12. 31.

미래사회
Journal of the Future of Society
2021. Vol. 12, No. 7, 117~131.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discrimination / damage experience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HongIl Choi YunMi Jung SeolHeui Yoo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between two children's panel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4th to 6th grade. For this purpose,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us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utoregressive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discrimination and damage experience. In other words, previou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econd,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at the previous point of tim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abuse at the next point of view, respectively. In other words, the cross-lagged paths in which discrimination and damage experiences cross each oth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we ident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through imitation and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damage, and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damage of children.

Keywords: discrimination behavior, discrimination damage, community child center, Child Panel, Autoregressive Cross-lagged